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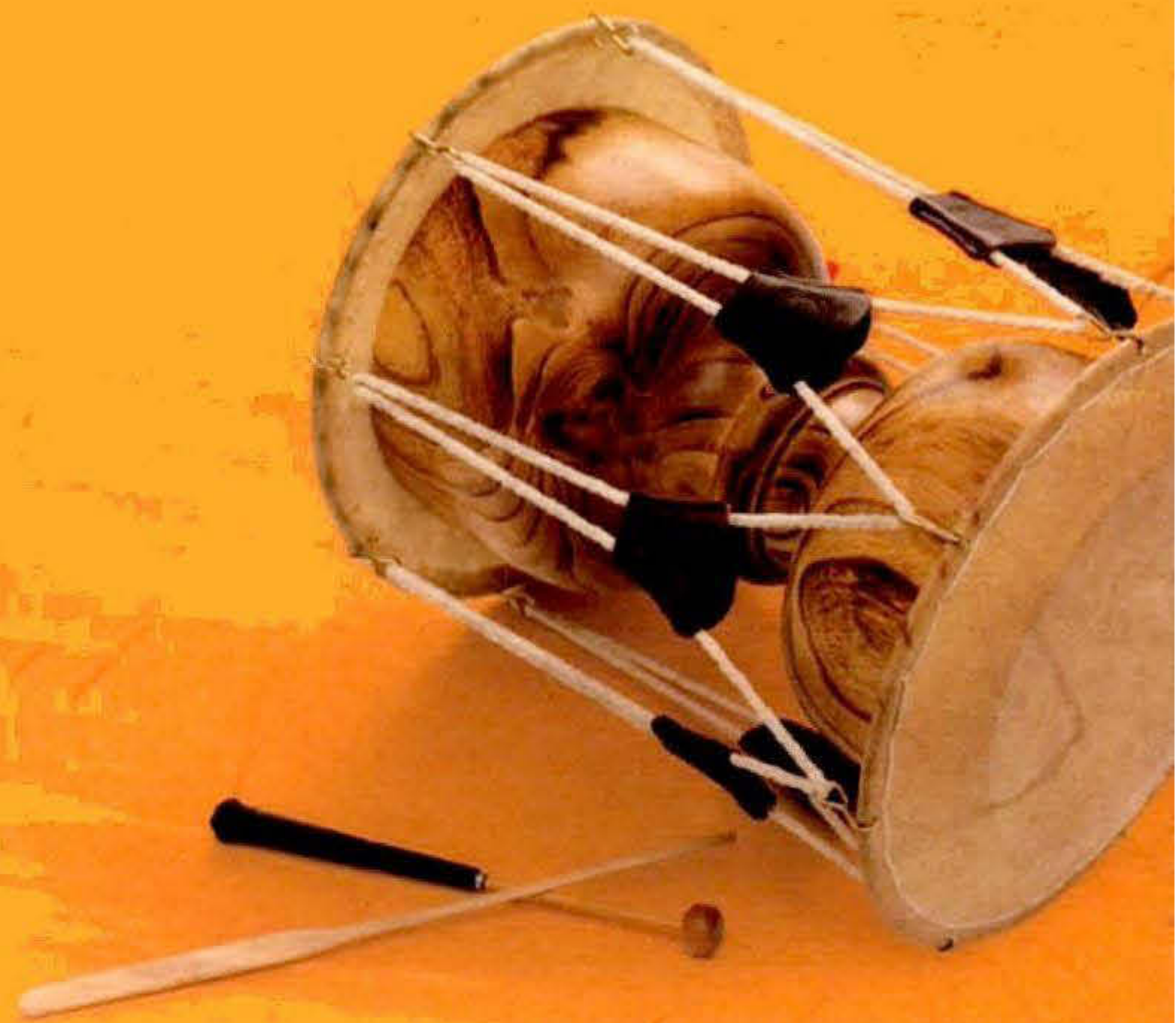


제25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제 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덕산고등학교

보부상 난전놀이

출연분야 | 민속놀이
전송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출연단체 | 덕산고등학교(교장 차덕환)
공연 시간 | 20분
연 출 | 이정순
지도교사 | 한재영
주관(사행) | 예산문화원(원장 김시운)
기간 | 2018. 10. 12.
장 소 | 제주 성읍민속마을



덕산고의 자랑

본 교는 충청남도에 7개교 밖에 없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재지정(2017~2021)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참학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예산지원(일반고의 2배 수준),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과 운영, 특성화된 교육과정(코딩, 중국어, 미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포지역 이전(2019.03.01.)으로 새로운 명문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진로 지도를 통한 블루오션 행복 학교를 지향하고, 협력과 상생으로 학생 활동 활성화를 꾀하며, 매현 품성 3사랑 인성업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리더의 품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여 1인 1정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활동 지원, 선후배 연계 멘토링 활동, 동아리 단위 봉사활동 전개, 동아리별 각종 대회 참가, 1동아리 1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교 특색 사업으로 매현 정신을 계승하는 매현 바로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지역 사회 복지 시설과의 MOU 체결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사제 동행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012~2018년 현재)

꿈 너머 꿈을 꿀 수 있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이 학교가 바로 초 현대식 시설과
질 높은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덕산고등학교 입니다.

목차

1 인사말

2 민속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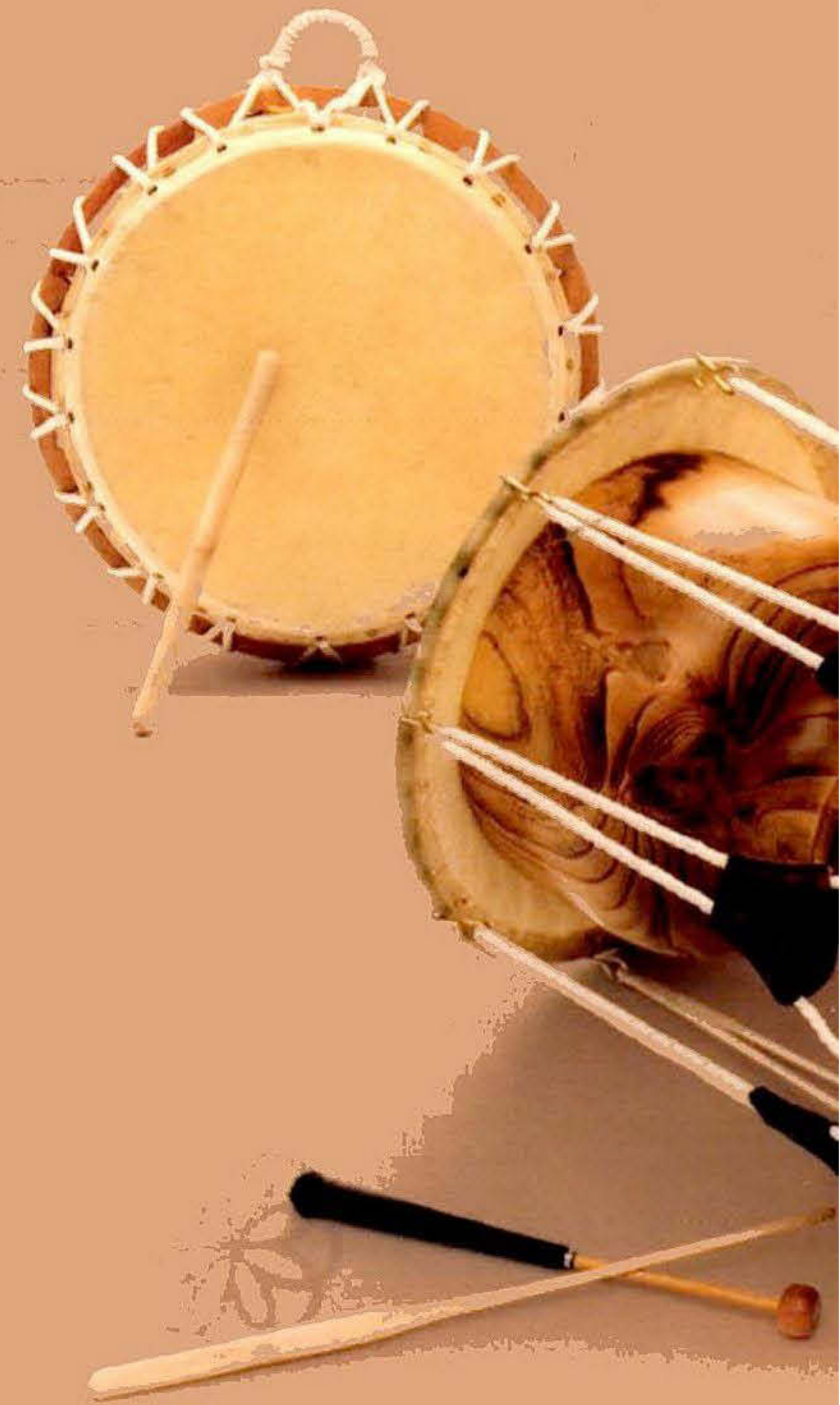
3 민속의 특징

4 공연 순서별 내용

5 예산 보부상 난전 놀이의 노랫말

6 출연자 명단

7 연출가의 말



보부상
난전놀이

덕산고등학교

인사말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장터문화의 재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25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대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장은 강경장, 공주장과 더불어 충남을 대표하는 전통시대의 큰 장터로 충남 서부 평야지대의 농산물과 해산물 등이 왕성하게 교류된 장터였습니다. 죽방울 놀이로 관객을 모아 장사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박익수를 중심으로 한 장터 풍장단의 공연이 장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예산을 대표하는 문화로 육성된 장터문화를 재현해내어 참석한 모든 분들께 특별한 재미를 선사해줄 것입니다.

우리네 삶의 멋과 흥, 한이 담긴 민속예술이 계승되어 여러 사람에게 아직까지 큰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속 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청소년 여러분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수에 힘쓰시는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술제가 참가한 여러분 모두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해왔던 민속 문화를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대한민국 최고의 민속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우리 군의 자라는 청소년들이 출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통과 문화를 아끼는 고장 예산에서는 많은 사람이 민속의 흔적을 찾고 전통예술 보존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덕산고등학교는 보부상문화의 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일에 청소년들이 앞장서는 모습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보부상 공연을 하는 학생들,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선생님, 지역 고유문화 보존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문화원까지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문화가 탄생합니다. 내년이면 지명 1100주년을 맞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예산은 내포문화의 중심지였고 충남을 대표하는 왕성한 장터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부상 문화도 발전했고 이미 명맥이 사라진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까지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부상 공연에서 장터를 떠돌던 장사꾼들이 경험한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포는 충남의 중심지였고, 내포의 문화인 보부상은 충남의 대표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보부상 공연 중에 등장하는 '계화가, 싸구려 타령, 독장수 장사소리'와 같은 노래에는 옛날 충청도의 말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속문화의 흔적이 가득한 학생들의 공연은 신명나는 볼거리인 동시에 귀중한 문화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공연은 예술성, 대중성, 민속성 중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공연입니다.

보부상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장터를 무대 삼아 활동하며 독특한 조직문화와 다양한 민속놀이를 만들고 전승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고유한 놀이문화를 만들어냈던 보부상의 명맥이 오늘날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전수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민속문화 이해하고 맥을 잇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온고지신의 무대에 서는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수

황선봉

인사말



예산문화원장

김시운

충청남도 예산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충(충), 자암 김구 선생과 의종은 형제 이순 이성만 형제의 효(효), 추사 김정희 선생의禮(예) 모두가 서려있는 인문 삼합의 도시입니다.

1,100년 유구한 예산의 역사에 또 하나의 어울림의 문화가 있습니다.

상부상조의 전통속에 시장의 질서를 지켜온 <보부상의 문화>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공문제를 올리고 축제를 열어가는 빛나는 문화로 맥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보부상의 문화가 덕산고등학교 차덕환 교장선생님의 애정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어른들만의 문화가 아닌 청소년의 전통문화로 되살아 났고 이러한 결실이 금번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선정되어 전국 무대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동안 방과 후 활동만으로 기성세대 못지않은 예술 작품으로 완성해 준 학생들의 열정이 자랑스럽고 이러한 활동을 이뤄 내기 위해서 애정으로 감싸주신 차덕환 덕산고 교장선생님과 한재영 선생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문화원 자문위원으로 전통의 맥을 후학에 계승하기 위한 발걸음의 초석을 놓아 주신 이결재 자문위원님과 이를 도와 전통문화 전승과 계승발전이라는 대승적 목적에 학생들과 함께 열정을 공감하고 계시는 이정순, 임장묵 두분 지도 선생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부상 난전 놀이는 그동안 보부상의 제사 문화인 공문제와 접장 선출과 취임식, 그리고 장터문화를 한덩이로 묶어 공연하여 제사와 행사 장터 난장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를 합한 작품이기에 어색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원에서는 공문제와 접장 선출과 관련된 행사성 프로그램을 과감히 생략하고 순수하게 보부상의 장터문화 만으로 구성하여 설명 없이 보아도 재미있고 옛스러운 보부상 문화를 펼쳐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금번의 출연을 기회로 우리고장 예산이 <보부상문화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하며 덕산고등학교가 앞으로도 보부상의 문화를 특화시켜 나가는 정통이 되어 오래도록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시는 관객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박수가 이를 이어나갈 시작이 될 것 입니다.

특히 지역 전통의 맥이을 이어나가는 발판을 놓아 주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 빛나는 전통의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우리 학교는 매헌 윤봉길 의사를 배출하고 덕산온천과 보부상의 문화가 빛나는 고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60년 전통의 고등학교입니다.

명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오랜 전통에 빛나는 <한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예산보부상난전놀이>로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는 부담보다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민속을 체험하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즐겁게 임하여 출연에 앞서 시행한 공연에서 연극적인 요소, 전통의 소리, 춤과 악기가 어우러지는 종합공연을 훌륭하게 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행정적인 모든 기획을 맡아 행해주신 김시운 예산 문화원장님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충청남도과 예산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를 즐기면서 계승하여 앞으로 예산, 덕산 장에서 전승되어 온 보부상 난전 놀이를 발전·선양하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덕산고등학교장

차덕환

민속의 유래

I 보부상의 유래

보부상은 전국의 장터를 무대로 등짐장수와 봇집장수들이 이룬 조직으로 고려말-조선초,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장사꾼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으며, 이를 고맙게 여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어 상인조합을 구성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면서부터 생성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임.

I 보부상의 문화

전국적인 조직망을 정비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신분증(신표)을 발급하였으며 상권을 보호해 온 보부상은 자체적인 결속력을 다지기 위하여 많은 고유문화를 생성, 보존, 발전시켜 왔으며, 지역마다 독립적인 단체조직을 정비하여 접장 두령 등을 자신들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취임식과 이임식을 보부상의 개척자들에게 제사 지내는 공문제장에서 시행하는 등 독특한 문화를 보존해 왔음.

I 예덕 상무사와 덕산장의 장터 문화

예산장과 덕산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덕상무사>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타 고장의 보부상과 상무사가 급속도로 쇠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는 물론 한국 전쟁 이후에까지 존속하였으며 매년 1회 공문제를 정기적으로 올리고, 이에 따른 상무사 두령들의 위패 등에 유물을 흐트러짐 없이 간직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까지 덕산장의 장세를 받아 관리하고 <장터 풍장패> <약장사 죽방울 놀이> 등이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활동하였음.

I 전승

1980년대 이후 예덕 상무사와 보부상 난전 공연단이 청소년들에게 보부상의 문화 중 죽방울 놀이를 전수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한편 고 윤규상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8년도까지 보부상과 난전놀이 마당이 전수되고 있음.

민속의 특징

공문제와 난전 문화의 분리

- 그동안 예산에서는 후배 보부상들이 선배 보부상을 추모하는 제례인 공문제와 접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거행하는 문화와 보부상과 장사꾼들의 장터문화를 합하여 공연하여 왔음.
- 이는 제사, 행사, 난전문화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화를 하나의 작품에 혼합하여 연극적인 요소로 공연하므로서 민속예술의 진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음.
- 이에 금번의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는 보부상과 장사꾼들의 장터 문화를 한정적으로 분리 연출하여 설명 없이 보아도 재미있는 장터의 문화를 재현해내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예산, 덕산장의 장터 문화의 특징

- 예산장은 강경장, 공주장과 더불어 충남을 대표하는 전통시대의 큰 장터로 충남 서부 평야지대의 농산물과 해산물 등이 왕성하게 교류된 장터였음.
- 예덕 상무사의 활동이 왕성하여 많은 보부상들이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해방 이후에는 실존 인물 맹재명이 고약장사를 하면서 죽방울 놀이로 관객을 모아 장사를 하였고,
- 예산 삽교읍 출신의 박익수는 장터 풍장(일명 난장 풍장)단을 조직하여 예산장과 덕산장에서 농번기를 제외한 장날마다 공연하는 문화가 있었으며 이는 타 고장에서는 흔치 않은 특별한 사례에 해당함.
- 타 고장의 상무사들이 일찍 해산한데 반하여 예덕 상무사는 지금까지 조직을 유지하면서 공문제를 지내고 있으며
- 예산군에서는 보부상의 문화를 예산을 대표하는 문화로 육성하고자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독장사 소리, 젓갈장사 소리, 싸구려 타령등이 원형대로 전승되고 있음.

공연 순서별 내용

1

개시 모습

보상(물건을 이고 다니는 장사꾼)과 부상(지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새벽 장에, 보부상들의 단가와 같은 <계화가>를 부르며 입장하여 각자 짐을 풀고 자리를 펴며 차일(장사꾼들의 상행위를 위해 치는 작은 천막)을 치고 팔아야 하는 물목을 진열하고 손님을 각자 부르는 소리를 외침.

2

장꾼들의 마당

한동안 시끄러운 장터의 풍경이 연출된 후 보부상의 주요 물품이며 광천장을 중심으로 보급된 젓갈 장사가 재담과 노래로 젓갈 장사를 함. 이때 장돌뱅이와 주민 상인들이 모여들어 떡 장사, 짬신장수, 장터 주막, 엿장수 등 다수의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각자의 물건을 팔기위해 시끌벅적한 장터의 모습이 이어짐.

3

싸구려 타령

싼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호객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 마당으로 「하나에는 한냥이요 두 개에는 두냥인디 세 개 사가면 한냥이요.」하는 재담이 이색적인 소리와 장사 마당.

4

독장수 마당

보부상의 주요 물목 중 하나였던 독(장독 등) 장수가 재담과 노래로 독 장사를 함

5

새우젓(젓갈) 파는 소리 마당

새우젓을 중심으로하는 여러 가지 젓갈류를 팔면서 장사꾼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마당.



보부상 유품 전시관(중요민속자료 제30-2호)

6

약장수와 죽방울놀이 마당

오전 장이 기울어질 무렵 장터에 죽방울을 앞세운 약장수가 등장하여 노래와 함께 죽방울놀이를 펼치며 재담을 섞어 손님을 모은 후 고약 등의 약을 팔

7

장터 풍장마당

죽방울의 약장수가 시들해지면 장터 풍장패들이 등장하여 장터 풍장, 상모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등으로 흥을 돋움

8

대동 마당

약장수의 죽방울놀이와 장터 풍장단이 함께 공연하는 대동 마당으로 풍장 장단에 맞춰 죽방울놀이를 펼치며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출연자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놀이판을 벌임

9

다음 장으로

다음 장을 위해서 집을 꾸려 계화가를 부르며 퇴장함

예산 보부상 난전 놀이의 노랫말



계화가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태조대왕 등극후에 우리생명 건져냈소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영위영감 반수영감 듣잡시오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시제영감 요중영감 모시고 들어갑시다.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오늘이 몇일이냐 삼월 열하룻날입니다.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우리가 살 면 몇 백년 사나요.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죽음으로 보은 충성 합니다.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산천 초목은 젊어나 가지만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우리네 인생은 왜 이리 늙어만 가나요.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이번 선소리 끝나며는 잣은 발짝 쳐보세.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빠르게)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오늘이 몇 일이냐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삼월 열 하룻날이지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오늘이 어디 장인가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예산 하구두 덕산장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오늘 장에 천냥 벌구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내일 장을 치러가세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천냥 만냥 벌어 보세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천냥 만냥 벌어보세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느리게)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싸구려 타령 | 창자 유진룡

(사설)
자! 자! 싸구려 닐네.
싸구려 닐어
골러 잡아유 골러 잡아유
한 가지 잡구는 한 돈, 두 가지 잡구는 두 돈인디,
아 - 그런디, 세 가지 잡구두 한 돈이라닝께.
골라 잡아유 골라 잡아

(창)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 조종은 황하수라
양반의 대감은 곤룡 대감, 아니 놀고 무엇하리

원앙금침 잣베게는 나 혼자 빌라구 만들었나.
어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덕산장이 싸구려 닐네.

(사설)
자! 자! 싸구려 닐네
골러 잡아유 골러 잡아유

독장사 장사소리 | 옹기타령

(사설)

독-옹기왔슈. 독-단지왔슈. 독-밥사발유
(독장수들이 요강.독을 손에들고)

(창)

옹기 사유 옹기유 반질 반질 옹기유
흙으로 빚은 옹기유 숨을쉬는 옹기유
음식맛을 내주는 옹기유-

물독은 독가지구 새우젓독은 독이구
고추장 된장은 단지유-

떡을 찌는 시루가 있구 몸에 좋은 보약달이는
약탕기 달고맛있는 꿀단지 밥퍼먹는 밥사발
찌개 끓이는 뚝배기

(사설)

약탕기 왔슈-독. 꿀단지 왔슈-독
시루가 왔슈-독. 뚝배기 왔구먼유-독

새우젓 타령

어서들 와유
가져를 가유
싸게 싸게 다 팔어유
어디를 가면 가져를 주나
일찍 일찍 다 팔어유
자- 새우젓 사유-

초봄에 담은젓은 새우젓이고
이월 오사리 오젓이유
오뉴월에 담은 젓은 육젓이구.
가을에 담은젓은 추젓이유

겨울 산새우는 동백젓이구
충청도 광천에 토굴젓이유.
서산에 무슨젓이 있쥬?

그밖에도

홍합젓. 곤쟁이젓. 오징어젓. 꿀뚜기젓. 황새기젓.
밴댕이젓. 멸치젓. 갈치창자젓까지 있으니
(다 같이) 들어 들 가슈-

죽방울 노래 | 창자 유진룡

자-

죽방울이여 죽방울 죽방울이여 죽방울
하늘이 솟으면 죽방울이여 땅이 떨어지면 땅방울이라
네놈에 팔자가 죽방울이라 땅이 떨어져서는 못살어유-

자-(두 번 더 반복)
얼씨구 절씨구 잘두헌다.얼씨구 절씨구 잘두헌다(4번 반복)
잘두헌다.잘두헌다(4번 반복)

고놈 고거 잘헌다.

출연자 명단

원진 | 1학년·여
농악(장구)

이정환 | 1학년·남
소리

장정윤 | 1학년·여
소리

주연선 | 1학년·여
농악(팽과리)

강다은 | 1학년·여
손님, 깃발

박은진 | 1학년·여
농악(장구)

이어진 | 1학년·여
농악(장구)

김미연 | 1학년·여
손님

이학송 | 1학년·여
농악(징)

차승아 | 1학년·여
상무

유태석 | 2학년·남
손님, 깃발

이제현 | 2학년·남
소리, 손님

신유철 | 2학년·남
두령

양석진 | 2학년·남
농악(장구)

원영재 | 2학년·남
농악(북)

임민중 | 2학년·남
농악(북)

고재영 | 2학년·남
소리

서종찬 | 2학년·남
농악(북)

윤미현 | 2학년·여
소리

이지원 | 2학년·여
손님, 장사꾼

이지혜 | 2학년·여
손님

이채호 | 2학년·남
긴 상모

구본명 | 3학년·남
팽과리(상쇠)

강승준 | 3학년·남
죽방울

김태규 | 3학년·남
죽방울

김현우 | 3학년·남
죽방울

박성진 | 3학년·남
죽방울

박왕건 | 3학년·남
죽방울

장수연 | 3학년·여
농악(북)

전정민 | 3학년·남
죽방울

주현민 | 3학년·남
소리

차재은 | 3학년·여
농악(북), 장사꾼

함께 노력한 사람들

주관학교 교장 **차덕환** _ 학생 참여 총괄

예산문화원장 **김시운** _ 기획 진행 총괄

연출 **이정순** _ 작품 연출 총괄(노래 지도)

지도 교사 **한재영** _ 학생 활동 총괄

구성/자문 **이걸재** _ 민속의 정리 및 공연의 구성

사무국 **박세직** _ 기획, 예산 집행

소품 **임장묵** _ 소품제작 및 장터 풍장 지도

연출가의 말



연출가

이정순

평생 처음 고등학생들과 민속, 보부상 난전놀이를 지도하면서 학생들과의 예술활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성인들보다 매우 빠르게 예능을 익히지만 대학진학을 목전에 둔 학생들의 어려움과 함께 해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프로그램마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끝없이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장터의 문화는 어렵지 않아야하며 설명하기 보다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금번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출품되는 <예덕 상무사>의 보부상 난전(亂塵) 놀이의 마당은 성인이든 청소년들이든 설명으로 이해를 돕기 보다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박수와 격려가 있다면 학생들은 분명히 잘 할 것입니다.

보부상 난전놀이

덕산고등학교

예산 보부상 문화의 중심

사)예덕상무사 | 접장: 윤철현

예덕상무사(접장:윤철현)는 예산장과 덕산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보부상 조직으로 수백년동안 보부상문화를 전승해온 사단법인입니다.

예덕상무사의 보부상관련 물품은 중요민속자료 30-2호로 지정되어 예산보부상 유품전시관(예산군덕산온천로 183-5)에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공문제를 지내온 전통의 힘으로 보부상촌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보부상 유품 전시관(중요민속자료 제30-2호)